
1920년대



1990년대


2010년대

202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전격 취소

종단협 · 보존위 5월19일 발표
이태원發 코로나 확산 우려에
연등회 첫 '자발적 취소' 결정
"국민 건강 고려 대승적 판단"
5월30일 봉축법요식 예정대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전격 취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심사숙고 끝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5월 23~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의 연등회 취소 결정은 최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내려진 결정이다. 연등회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1961년 4.19 계엄령과 1970년 계엄 상황 등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연등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 자발적인 취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처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교계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간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해왔다. 각종 법회와 행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했으며, 일부 주요 사찰에서는 산문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성금과 생수 지원, 사찰음식 도시락 지원 등 활발한 지원활동도 펼쳤다.

또한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윤사월로 변경했고, 4월 30일에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입재해 전국 종단협 소속 1만 5000여 사찰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금곡 스님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교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5월 23일 예정했던 '연등법회'와 '연등행렬'을, 24일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불교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변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위기가 하루 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기를 발원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결정이 더욱 의미 있게 우리 사회에 회향될 수 있도록 뭇 생명의 평화를 위한 정진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계의 대승적 결정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이디 'ci****'는 "자기 종교의 이익보다 국민을 생각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자체가 참 불교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으며 'sy43****'는 "연등회 취소가 아쉽지만 너무나 잘하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자비로운 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사월 초파일인 5월 30일 봉행 예정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한달여 간 진행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회향하게 된다.

연등회 취소 관련 SNS 반응들

절 8년 넘게 다녀본 입장으로는 연등회 취소된 것이 아쉽기는 하다. 규모가 엄청나다보니 한참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취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참 안타깝다. 〈@Dan******〉

불교계 연등회 취소. 스님들 쿨하구나. 〈@cal******〉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다니 감탄했다. 어러니 저러니 해도 불교는 정말 대단해. 〈@bax****〉

난 이래서 불교가 좋은가봐. 〈@xeHn**********〉

취소하는 것이 상황에서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네. 1년을 또 기다려야하는구나. 〈@rira******〉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A·B·C·D섹션 76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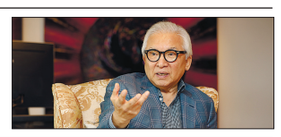
봉축 데스크 초대석 A5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봉축 특별 대담 A16 · 17
의정 · 각산 스님



리더에게 聽하다 C1 · 2
조태권 광주요 회장



봉축법어 · 봉축사 A13 · 14

봉축 연등 PHOTO C8 · 9



봉축특집
5.18민주화운동과 불교 A7 · 8 · 9 · 11



포스트 코로나와 불교
B1 · 2 · 6 · 7 · 8 · 9 · 11



봉축 시방세계 B13
성주사 코로나19 종식 기도회 현장

"공불련 20주년, 성지순례로 구심점 구성을"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회장

전국 15개 지부 추가 계획
외국공무원 교류확대 추진
국내 성지순례 사업 모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조직으로 거듭난다. 손창동 신임회장<사진>은 5월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교계 기자들과 만나 공불련의 활동 재개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인 손 회장은 4월 22일부터 2년 동안의 제12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불련이 그동안 진행해 오던 월례법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 종식 후 조직 강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가장 먼저 손 회장은 15개 지부 구성과 지역법회를 통한 재개 계획을 밝혔다. 손 회장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공불련은 아쉽게도 전국에 지부가 없는 곳이 많다. 적극적으로 지역 조직 구성을 장려하여 전국 시도 15개 지부를 추가로 구성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법회 및 합동법회를 여는 한편, 해외성지 순례를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능한 국내 성지순례로도 전환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고향인 경북 도계지역은 신라불교 초전지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불교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지지 않은 국내 불교 성지를 찾는 순례는 그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공무원 불자들이 공부하고 함께 수행해가는 구심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화 단계에서 다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1965년 태어나 불교종립인 심인중학교를 나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보 스님, 월정사에 교육불사금 30억원 기탁

5월 16일 37주기 다례재서… 은사 탄허 스님 유지 계승

영월 법흥사 주지 삼보 스님<사진>이 은사 탄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해 월정사에 교육불사를 위한 30억원을 기탁했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선지식 탄허 스님은 생전 승려교육과 불교인재양성에 대한 남다른 원력으로 평생 교육 불사에 매진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16일 탄허 대종사 37주기 추모다례재에 이어 삼보 스님의 교육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삼보 스님은 이날 "은사 스님의 정신을 현양하는 교육불사에 사용해 달라"며 30억원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월정사에 기탁한 30억원은 삼보 스님이 연금과 사찰 소임비를 수십년간 모아 마련한 금액이다.

삼보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겠다는 원력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추서 받은데 따른 연금을 수십년간 전액 저축했으며 소임비를 절약해 모은 금액 등을 더해 교육불사기금을 조성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 발원합니다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